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도요타·닛산 제치고 지구촌 '무한질주'

5 기아차 '쏘울'

불황에도 내수·수출 판매 급증
한국대표 자동차 브랜드로 인기
광주공장 생산라인 풀 가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직원이 쏘울 생산라인인 1공장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쏘울은 짧은 기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에서 생산되는 기아자동차의 '쏘울'이 한국 자동차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수는 물론 수출시장에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아이언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첫 생산을 시작한 쏘울은 국내 자동차 시장을 평정하는데 이어 지난 3월 미국에 상륙한지 불과 2개월만에 가장 강력한 인지도를 가진 신흥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짧은 기간동안 쏘울에 쏟아진 찬사가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쏘울은 지난 3월 한국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09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4월에는 미국 자동차 전문잡지인 '파플러 메카닉스'에 선정되는 등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해외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 자동차 평가기관인 쉐릴뷰루브이 선정된 '5개 최상의 선택차종'에 선정됐으며 미 자동차 전문지인 '파플러 메카닉스'에서 실시한 비교 테스트에서도 경쟁모델인 도요타 싸이언xB, 닛산 큐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성능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

받았다.

이같은 평가는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쏘울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1만6천600대, 해외에서 4만1천179대가 팔려 나갔다.

올해 들어서는 판매량 증가세가 더 가팔라져 4개월동안 3만8천대가 판매돼 광주공장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80%인 3만673대로, 북미시장에서는 '박스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이름을 올렸다.

쏘울의 인기 비결은 승용차에 뺨을 찌목한 다목적 퓨전차량(크로스오버·CUV)이라는 점과 독특한 디자인에 있다. '짧은 감각의 신개념 CUV'를 목표로 30개월의 연구·개발기간동안 1

천900억원이 투입된 쏘울은 '디자인 경영의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다. SUV의 스타일에 미니밴의 다목적성과 세단의 승차감이 잘 조화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쏘울의 인기에 힘입어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된 작업과 특근이 이달부터 재개 되는 등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풀가동하고 있다. 광주경제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쏘울 효과로 경기침체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셈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쏘울은 이미 지역 명품 브랜드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수출목표 10만대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상장폐지 C&重 기사회생할까

KTB투자증권 인수설... 증권가 관심 집중

'감사의견 거절'로 정리매매가 진행됐던 C&중공업이 13일 상장폐지돼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인수·합병(M&A)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기사회생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중공업 등 C&그룹 핵심 계열사 3곳이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이날 상장폐지됐다. 이로써 C&우방랜드만이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유일한 상장사로 남게 됐다. 2006년 설립된 C&중공업은 조선

업이 대호황을 누리면서 한 때 주가가 주당 1만4천700원에 육박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그룹 핵심 계열사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올해 초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상장폐지일 증가는 180원이었다. C&중공업은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됐지만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KTB투자증권이 인수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C&중공업은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됐지만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KTB투자증권이 인수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독자매각을 추진중인 C&중공업은 KTB투자증권의 회사 인수설에 대해 양측간 민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C&중공업 관계자는 "선박펀드 등에 관심을 보여온 KTB투자 쪽에서 C&중공업 매각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KTB측에서 C&중공업 M&A를 위한 정밀 실사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조희공시 답변을 통해 "C&중공업 인수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녹색성장기업에 금융 지원

전남도-光銀 업무협약

전남도와 광주은행은 13일 전남도청에서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남도 내 녹색성장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지원 업무협약' 지원 대상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녹색성장 관련 기업으로, 친환경 제품 및 우수재활용제품 제조

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폐기물 재활용업체, 녹색구매 협약 체결업체 등으로 지역 내 약 1천 800개 기업이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는 지원 대상기업을 은행에 추천하고,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녹색성장산업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

된다.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녹색성장기업에 대해 대출이율 연0.5~1.33% 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입신용장 개설 시 수수료 감면 등이다.

윤인후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3대 분야 10대 정책방향'에 해당되는 도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 내 녹색성장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형기기자 redplane@>

대한통운, 베트남에 합작법인 설립

대한통운은 13일 베트남 국영 항만 하역사 사이공포트와 함께 현지 합작법인 '대한통운사이공포트'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베트남 푸미 산업단지

의 전용부두를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항만하역과 공장내 이송, 통관 및 공장 반경 180km 내 지역 육상운송 등의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통운은 지난 1996년부터 베트

남에 진출, 운송·국제택배·보관·복합화물운송주선·통관 등 종합 물류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국동 사장은 "베트남 항만하역 사업 개시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로서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노이 중심의 베트남 북부지역에도 거점을 확보, 중국 대륙과 인도차이나를 잇는 물류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2) 227-9940
수원점 (061) 752-9940
속리산점 (02) 227-9970
홍도점 (081) 262-9200
익산점 (061) 851-2422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고객의 행복, 건강한 삶, 행복한 서비스를

HAVER & WE

671-1199

The One

세계 최고 MBA출신 경영전문가 재혼정보회사 선택한 까닭은?

"인인의 발간실 잇는 행복출발 더윈 경영진"

더윈 by (주)명백출판

www.theone.co.kr

062) 527-3388